

을 그대로襲用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主張하는 이도 있다.

그러므로 本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唯一한 資料는 現在 프랑스 파리의 「책의 歷史」의 陳列場에 展示된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그 印本の 字體, 字形, 字劃 등을 嚴格하게 鑑定하기 위하여 그 分野의 專門家를 現地에 派遣하는 이외에는 다른 方法이 없다고 생각된다.

文化史的 側面

延世大 教授 孫 寶 基

1. 1091 「宣宗 8年 6月 丙午 李資義等還白宋奏云帝聞我國書籍多好本」-〈高麗史〉 10.23 a 256
2. 1101 「制以秘書省文籍板本委積損毀命置書籍鋪于國子監移藏之以度摹印」-〈高麗史〉 11.26b
3. 1102 吾東方獨未之行 今始制鼓鑄之法 芝以所鑄錢一萬五千貫-〈高麗史節要〉 6.45 ab
4. 新印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
「……而有家藏一本得存焉豫然後益諳先志, 且幸其不失遂用鑄字, 印成二十八本, 分付諸司藏之」-〈東國李相國後集〉 卷十一(1234-1241, A.D.)
5. 「天南明證道歌者, 實禪文之樞要也, 故後學參禪之流莫不由斯而入外堂觀奧矣, 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乎, 於是募工重彫鑄字本以壽其傳焉, 時己亥(1239, A.D.) 九月上旬, 中書合晉陽公崔怡 謹誌」-〈南明泉和尚頌證道歌〉刊記
6. 「……近世又 鑄錫作字, 以鐵條貫之作行, 嵌於鹽內介行印書…」 皇慶 癸丑(1313 A.D.) 自序一王楨撰〈農書〉後記
7. 「宣光 7年 丁巳 7月(1377) 淸州牧外 興德寺 鑄字印施」-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〉
8. 「四年置書籍院, 掌鑄字印書籍…」-〈高麗史〉 卷七百官志諸司都監各色書籍店(1392 A.D.)
9. 「初置書籍院, 掌鑄字印書籍」-〈高麗史節要〉 卷三五, 恭讓王 四年正月條
10. 「…其書滿架充棟…」-〈三峯集〉 卷一置書籍鋪詩
11. 「…功既告訖 付書籍院, 以白州知事徐寶所造刻字印出無慮百餘本, 而試頒行, 庶不負欽恤之意也, 時洪武乙亥二月…識(1395 A.D.)」-〈大明律直解〉跋文
12. 〈開國原從功臣錄卷〉(沈之白)
「洪武三十年(1397 A.D.)十月 日」

Analysis of composition of a Korean type in the

collection of the East Asiatic Library.

Made by Mr. George Gordon, Spectrographer, Mineral Technology, University of California, March, 1956.

Cu	ca. 84%
Pb	7%
Sn	7%
Zn	1%
Fe	0.1%
Bi	0.001%
Si	0.01%
Ni	0.05%
Ag	0.01-0.005%
P	not detected —less than 0.05%

書誌學的 側面

成均館大 副教授 千 惠 鳳

前略

麗代的 鑄字에 관한 記錄中 實物이 傳存되고 있는 資料는 宣光 7年 即 禑王 3年(1377) 刊行의 「白雲和尚抄錄直指心體要節」뿐이다. 이것이 파리에서 發見된 며칠後 國立中央圖書館에서도 같은 書名의 冊이 나타났다. 그 刊行事項을 보면 白雲和尚이 1372年 壬子에 抄錄手書한 稿本을 6年後인 宣光 8年 戊午 6월에 驪州 北쪽 慧月山 驚巖寺에서 開板한 것임을 알 수 있다.

같은 해 7月 같은 寺刹에서, 같은 刻手에 의해 刊行된 同 和尚의 高麗本 「白雲和尚語錄」과 比較해 본 結果 後刷本으로 鑑定되었다. 木版本刊記에는 「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」의 記錄이 전혀 보이지 않고 「書員式菴禪和天旦」이 刻入되어 있는 事實에 비추어 이것은 1年前에 刊行된 淸州本을 그대로 覆刻한 것이 아니고 書寫員이 새로 板下本을 써서 刊行한 異版本임을 알 수 있다. 이와 같이 두 冊의 刊行은 相互 關聯이 없기 때문에 木版本을 土臺로 한 淸州本의 形態의 特徵의 推定은 期待할 수 없다.

그러던 중 6月 23日 파리의 刊記를 包含한 紙葉 2面의 縮小書影 1枚가 文化財管理局에 郵送돼 왔다.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形態의 特徵을 鑑定할 수 있었다.

- 1) 匡部の 四周가 固着된 單邊이고, 界線이 匡部の 上下邊에 固着돼 있다.